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49년
2020년 4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4년 제 245 호

종령 특별법어

공업(共業) 참회하고 전화위복 계기로



종령 범공 대중사

중국 우한(武漢)에서 시발(始發)된 코로나 바이러스19 역병(疫病)이 현재 전 세계를 향해 질풍노도(疾風怒濤)처럼 퍼져나간 지구촌이 고통과 공포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총지중은 지난 2월 초에 정부시책과 우리 자신의 안위(安危)를 위해 일체 공식불사(자성일, 월초불공, 상반기 49일 불공 등)를 자제, 금지하고 각자 자가(自家) 집거(集居)로 개별불공과 일상수행에 전념 할 것을 공식화 했습니다. 그간 일부 지역적인 전염이 점차로 전국적인 방향으로 파급되어가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매우 유별난 고난을 당하게 되어 더더욱 우리 종도님들, 심신(心身)간 고통이 매우 크리라 생각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전쟁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불안하고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라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인류역사는 동서고금을 통해 고난의 연속 그 자체였습니

다. 이번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불자로서 우리들의 영원한 의지처(依止處)인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 땅을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娑婆世界)라고 하여, 그 뜻은 인토(忍土), 예토(穢土)라 하여 온갖 추악(醜惡)함과 고난이 많은 세계라 중생이 갖가지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즉, 참을성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지진, 홍수, 태풍, 화재, 질병, 기한(飢寒) 등이 있고, 인간사회는 탐욕심으로 인한 투쟁과 갈등, 국가 간에는 팽팽기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숙명적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할 운명임을 인정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겪고 사는 모든 환경조건과 인간관계는 모두가 인과법칙 안에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이번 코로나 사태도 인류 공업(共業)의 소산이며, 개별적으로 겪는 고통 또한 개인이 지은 별업(別業)의 과보(果報)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천만사(於千萬事)가 모두 공업(共業)과 별업(別業)의 인과(因果)입니다. 선악(善惡), 고락(苦樂)은 모두가 인과법(因果法)에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같은 고통도 남 탓을 하고 누구를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무엇을 잘 못했는지 공업(共業)을 참회하고 냉철히 반성해 봐야 합니다. 예컨대 크

게는 자연환경 훼손, 절제 없는 향락생활, 과소비 등입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근래에 와서 거의 5~6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바이러스 역병(疫病)(싸스, 메르스, 코로나 등)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고 하니 이참에 우리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참회와 서원으로 앞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잘못된 업(業-생활습관)을 깊이 반성하고 계름, 탐욕(음식, 잡, 사치 등)을 과감히 척결하고 가일층 불공정진과 즉각적인 실천수행으로 중무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젠 꼭 명심 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무사(武士)가 되어야 합니다.

그간 너무 장기간 출입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가히 정지된, 처음 당하는 이 고난을 전화위복(轉禍爲福)의 호기(好機)로 삼아 육체적으로 왕성한 면역력을 키우고 정신적으로는 가행(加行) 정진(精進)으로 부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고난을 겪으면서 더욱더 강해지도록 설계된 특수한 존재인입니다. 부처님의 설산 6년 고행,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공자의 유리팔방 고행 등 역사가 기록된 성현과 위인들의 공통점은 극심한 고난을 극복했음을 깊이 믿었고 이참에 '즉신성불(即身成佛)'의 대도를 증명해 보이는 총지불자가 되도록 다함께 지심서원 합니다.

음마니반메흠.

총기 49년 4월 1일
종령 범공 합장

코로나19 예방지원 3천만원 희사

3월 16일, 아름다운 동행 · 불교TV 공동 캠페인에 성금



왼쪽부터 통리원 총무부장 원당정사, 통리원장 인선정사, 불교TV 변대용 총괄국장, 재무부장 덕광정사, 교정부장 승원정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기부와 응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교총지중(통리원장:인선정사)이 아름다운 동행과 불교TV가 함께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성금 모금 캠페인'에 3천 만 원을 희사했다.

3월 17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불교TV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특별 모금 하루 전날인 16일 불교총지중은

통리원에서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 총무부장 원당 정사 등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불교TV 변대용 총괄국장에게 성금을 직접 전달하고, 사회 취약계층 감염예방과 의료기관 불품지원 등 캠페인 취지에 맞도록 사용을 당부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

니다. 저희 종단은 그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 각계각층에서 성금을 내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불교총지중도 마음을 모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고 뜻을 밝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염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고 계신 의료진들과 관계자분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전했다.

총기 4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한달 연기

봉축법요식 5월 30일, 점등식 4월 30일, 연등축제 5월 23일

불교계 최대 행사인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과 연등회(연등축제)가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 달 늦춰진 5월로 연기됐다.

봉축 행사 일정이 변경된 경우는 부처님오신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197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총지중을 비롯한 30여개 종단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이하 종단협)는 3월 18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



역사기념관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년 봉축 법요식을 5월 30일로 연기했다. <2면으로 이어짐>

종/조/법/어

어렵고 큰 착한 일을 하나 하는 것보다 일상생활 하기 쉬운 작은 착한 일이라도 많이 하여 습관 되면 크게 착한 것이 된다.

지면안내

2면 통리원장 안심법문 7면 현대 한국일교와 원정대성사
8면 법경정사의 마음과 밀교수행 10면 불교와 드라마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정 안내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5월 30일(토요일) 오전 10시 총지중 전국사원

봉축 점등식 4월 30일(토요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오후 6시 부산 송상현광장

서울 연등회 5월 23일(토요일) 동국대학교

부산 연등 문화제 4월 30일~5월 28일 송상현광장 일대

불교총지중

<1면에 이어> 또 4월 25일로 예정된 연등회는 5월 23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종단협 회장 원행 스님은 “불교계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법회 등 일상적인 종교 활동을 자제토록 해왔고, 모든 사찰이 이를 실천함으로써 부족하나마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는 데 노력해왔다.”고 전제하고, “이제 더 나아가 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로서 지금의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하여 그 아픔을 국민과 함께 하고 치유와 극복에 매진하고자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 일정을 윤 4월인 5월로 변경하여 치를 것을 고심 끝

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단협은 소속 전국 사찰 1만 5,000여 곳에서는 4월 말부터 한 달 동안 국난 극복과 코로나19 피해자 등을 치유하기 위해 불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기도를 시작, 5월 30일 전국 사찰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 회향한다. 아울러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 행사의 하나로 마련된 봉축 점등식은 4월 30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다. 어울림 마당과 연등행렬은 5월 23일 동국대 대운동장과 종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불교TV 코로나 특집 안심법문

우리 삶의 성찰의 계기로 삼자

통리원장 인선 정사



성도합시다.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우리 불자들에게는 특히 요즘 절에도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나름대로 기도 정진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시불공(時時佛供)·처처불공(處處佛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행 시간이 따로 있지 않고, 또 기도처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앉은 바로 그 자리가 법당이고, 서원당이고, 기도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정에서라도 내가 앉은 자리가 곧 기도처라 생각하고 열심히 정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교에서는 당체설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이 활동하는 것을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당체설법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일, 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모든 현상을 바로 부처님의 당체설법이며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며 공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오히려 우리의 행복한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의 원인을 보면 일부 사람들의 무분별한 생활과, 욕망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원망하기 보다 우리 삶의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나만 행복해서 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또 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야만 나도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코로나19를 통해서 희망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모습, 또 고통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같이 덜어주고자 많은 국민들이 물품이나 성금을 보내주신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에 우리 불자들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환자 분들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서 완쾌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아픔을 같이 하고, 응원하고,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교TV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한 국민들과 불자들을 위해 특집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통리원장 인선정사 편을 방영하여 그 법문을 소개한다.

총기 49년 정기 사무지도 감사 실시

사감원,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통리원에서



총지종 사감원(원장: 범경 정사)은 지난 3월 26일, 27일 양일 간 통리원에서 총기 49년 정기 사무 지도 감사를 실시했다.

사감원장 범경 정사를 비롯해 사감위원 도

우, 서령, 남해 정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감사에서는 통리원, 법장원, 유지재단, 종단 산하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기 48년(2019년)도 예산집행 등 회계처리 전반과 주요업무 추진의

적정성 여부, 사원신축공사, 사원수리비의 지출과 용역 및 물자구매계약, 예산운영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중무행정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사감원장 범경 정사는 감사 후 회향 자리에서 “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가 매우 잘 되었으며, 정책적인 부분이나 특별 사안에 대한 응급 주문에도 통리원에서 잘 대처해 무난하게 감사를 마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감사가 단지 점검의 자리가 아니라 통리원과 사감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종단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성장해 나아갔으면 바란다.”고 밝혔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교화의 현장에서 열심히 정진 중이신 스승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통리원의 살림살이를 잘해야 한다고 늘 다짐하며 행정을 펼쳐왔다.”며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충분히 개선해서 좀 더 나은 행정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제 184회 통리원 원의회 개최

총기 48년 결산안 가결 등 안건 심의



제 184회 원의회가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 통리원 사무실에서 열렸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해 총무부장 원당 정사, 재무부장 덕광 정사, 교정부장 승원 정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부의 안건으로 상정된 지난해인 총기 48년 결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사, 승직법 일부 개정과 기로스승법 제정에 관한 논의를 갖고, 이후 4월 21일에 개최될 종의회에 안건 상정을 통해 최종 의결기로 했다. 이밖에 ‘모범교도 스승입문 규정’은 폐지했다.

이밖에도 종단 현황을 공유하고, 올해로 맞이하는 종조멸도 40주년을 맞아 종조전 영정을 새로 제작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부산 정각사의 교화 차량 구입을 승인했다.

불교총지종 50년사

발간위원회 구성

창종 50주년을 맞아 불교총지종의 역사와 문화, 정책 포고 등을 총 망라하는 역사책 ‘총지 50년 사(가칭)’ 편찬 및 발간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총기 50년이 되는 내년 발간을 목표로 지난 3월 말 착수에 들어간 이번 작업은 발간위원회 위원장에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필두로 발간, 감수, 편집 세 분야의 위원을 모두 위촉함에 따라 추진 내용 및 방법 등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이번 발간 작업은 50년간의 발자취와 성과를 기록하여 역사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종단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반세기를 맞이하는 발전의 초석 마련에 그 취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단을 흥보하고 교화 발전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위원회 위촉장은 상반기 강공회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발간위원회 위원장 통리원장 인선 정사 △발간위원 우인, 범경, 원당, 법일, 덕광 정사 △감수위원 남해 정사, 지현, 보현 전수 △편집위원 승원 정사, 통리원 박재원 국장, 이선희 실장(이상 총 11명)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국가무형문화제 제122호 연등회 '희망과 자비의 등' 밝힌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에서 준비한 올해 봉축표어는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A Blooming World of Benevolence)이다. 봉축표어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은 부처님의 자비를 우리의 마음속에 꽃피워 사랑, 나눔, 행복, 평화가 세상에 피어나게 하자는 의미를 담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꽃'에 비유하여 함축적으로 표현한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이 선정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고통을 해소하고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주고자 하는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 마음과 온 세상에 가득히 꽃피길 기원하는 뜻이 담겼다. 또한 국민 모두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 발원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밝고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는 '희망과 자비의 등'을 밝힙니다"는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가 개개인의 건강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는 내용을 담아 따뜻한 희망과 자비의 등을 밝히겠다는 의미를 표명했다. 우리 모두 함께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 뜻이다.

중증무진과 상의상존

지혜의 눈

모든 존재는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결
불교, 역설적이게도 가장 오래된 미래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전파는 단기간에 전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WHO에 의해 팬데믹(pandemic)이 선언되었습니다. pan은 모두(all)를 뜻하고 demic은 사람을 뜻하는 demos에서 나왔습니다. pantheon은 pan과 신(theos)가 결합된 말이지요. 흔히 만신전(萬神殿)으로 번역됩니다. demos는 민주주의를 뜻하는 democracy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 민중 demos에 의한 지배cracy를 의미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물리학의 나비효과를 연상하게 합니다. 런던의 한 나비의 날개 짓이 일으킨 미풍(微風)이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켜 아마존강의 폭풍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 매우 잘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상의상존(相依相存)하는 모습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국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국경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외형상 고립되었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은 모든 존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현상을 밝혀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이러한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종교의 영역일 터인데 유일신교는 이러한 연기론적 세계관을 결여하고 있기에 현대사회에 적절한 교리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는 불교의 연기론(緣起論)이나 인드라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불교는 인도 신화의 신인 인드라에 의해 드리워진 그물인 인드라망을 모든 존재의 모습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그물의 그물코마다 존재를 상징하는 투명한 구슬이 달려 있는데,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의 모습을 비추고 그 구슬은 동시에 다른 모든 구슬에 비춥니다. 그러한 모습을 화엄종의 현수 범장을 이를 두 개의 거울을 마주하여 서로 비추는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중중무진(重重無盡)'의 관계로 이어져있음을, 의상대사는 범성계에서 '일즉일체다즉일(一即一切多即一)'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舍十方)'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렇듯 불교의 세계관은 초월적 유일신을 상징하고 그 신의 창조에 의해 이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마 유일신교와 불교가 교리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교는 현대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가장 적절한 답을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미래사회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구성의 원리의 하나로 반드시 불교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불교는 서로 주장하는 세계관이 매우 비슷하지만, 과학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쳤다면 불교는 그 기반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그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치료 방법이 저절로 마련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종교 중에서 그 창시자가 분명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종교는 불교입니다. 석가모니는 적어도 기원전 6세기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호지의 말을 빌린다면 불교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오래된 미래입니다. 미래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2,500여 년 전에 이미 बु다 석가모니가 말씀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종무실장 통리원 예방 4월 1일,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 집행부 환담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최병구 종무실장과 이 상호 종무관이 지난 4월 1일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취임 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소속한 주요 종단을 방문 중인 종무실장은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 집행부가 동석한 자리에서 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단 및 불교계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행정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구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우리 종단은 정부 지침에 따라 불교계와 함께 범죄와 불공 일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 종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진행될 종단의 교화 발전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통리원, 마스크 4천 개 전국 사원에 배포

정부가 시행중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종단도 지난 23일 전국 사원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4월 1일 마스크 4천 개를 구매하여, 전국 사원에 배포했다. 지난달 22일부터 4월 5일까지 2주간 진행 중인 이번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종단은 4월 월초 불공을 4월 6일부터 12일까지로 변경, 4월 5일까지 모든 법회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개인 정진 위주로 하기를 권유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소멸 사바하' 상반기 불공 서원사항을 5월 30일까지 공식불공시간에

서원할 것을 공지했다. 또 당초 4월 16일부터 예정이었던 춘계 강공도 상황에 따라 재결정 하는 것으로 일정을 미뤘다. 또한 △해의 여행자 및 발원자 사원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서원당 정진 시 간격 1~2미터 유지 △법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대중공양 금지 △사원 출입자 명단 작성, 관리(날짜, 성명, 전화번호 필수) 등 준수 사항을 전달했다. 승직자들도 외부 출입을 삼가고 정부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여 응징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종단 지침에 따라 밀인사 김육인 교도가 가정에서 수행정진 중이다.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가정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가정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가정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핀보리수 108염주 ₩ 40,000



연명의료 2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법상 정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어떤 치료를 해도 치료 효과가 없고 소생가능이 전혀 없을 때,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건강하고 의식이 뚜렷할 때 자필서명으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한다. 즉 내가 죽음에 임박하였을 때, 어떤 치료는 하고 어떤 치료는 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미리 밝혀 놓는 서류를 뜻한다.

과거에 사람들은 집에서 가족이 모인 가운데서 임종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가족이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줄었고, 도시생활과 공동주택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장례절차를 집에서 치루기 어려워졌으며,

법적으로 살인죄가 성립될 때도 있고, 실제로 살인죄로 재판을 받은 예도 있으며, 의료윤리를 저버린 의사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인공호흡기와 각종 약물의 투여로 호흡도 하고 심장도 박동하지만, 의식이 없고 다시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태에 종종 장기간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은 사망자 본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힘들지만,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은 대단히 커지게 된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더 이상의 무의미한 생명의 유지를 중지하고 싶어도, 가족이나 의사에게는 연명되는 생명을 중지 시킬 권한이 없다. 최근 우

향후 임종과정 환자가 되었을 때 대비 의료행위 중단 의사 본인이 미리 밝혀

또한 만성퇴행성 질환 등으로 장기간 의사의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전과 달리 죽음을 병원에서 맞이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에서 병원으로 위치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모든 과정에 의료팀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학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고, 특히 죽음에 임박한 생명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연장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은 첨단화되어 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그리고 각종 약물을 사용하면 이미 사망한 사람의 호흡과 심장의 박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이미 죽음에 임박한 경우라도 호흡과 심장박동을 의학적인 기술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장된 생명도 호흡을 하고, 심장이 박동하는 한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생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보호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왜 의사들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 말기 환자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가?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임할 때에, 의료윤리의 기본원칙은 사람의 생명은 그 어느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생명의 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생명연장을 위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생명 연장에 소홀 한다면

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생명의 유지를 중지시킬 권한은 사망자 본인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에 임박한 본인은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어도 불명료하고, 또한 사망할 당시에는 약물중독 등으로 자기의 의사를 밝힐 능력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죽음에 이르러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를 대비하여, 정신이 또렷할 때 미리 자기의 의사를 적어 놓고, 이를 가족에게도 알리고 후에 그러한 상황에서 치료하는 의사에게 알려,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을 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미리 자기의 의사를 알리면 사망에 임박한 본인, 의사 그리고 가족전체에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된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때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주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병원에서 사망할 것이 예견되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의료의향서를 써야 하는 대상이 된다.

만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심보이야기 6

법상 정사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

반야심경에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이란 경구가 있다. 안이비설신의는 인간이 가진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의미한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껴지는 것을 색성향미촉법이라 한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6근(六根)으로 표현하고, 6근을 통해 인식되어진 대상을 6경(六境)이라 한다. 6근이 각각의 감각 대상인 6경을 만날 때, 각각의 감각 장소인 6근을 통해 각각의 인식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인식을 6식(六識)이라 한다. 즉, 안식(眼識)·이식(耳識)·비식(鼻識)·설식(舌識)·신식(身識)·의식(意識)의 6식이다. 초기 불교에는 6식까지만 있는 것으로 봤다. 이상과 같이 6근이 6경을 만났을 때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6식이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 속의 인식작용이 18가지 범주로 나누어졌음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모두 합쳐 18계(十八界)라고 한다. 즉 6근(六根)·6경(六境)·6식(六識)을 합한 것이다.

좀 더 자세하게는 눈·귀·코·혀·몸뚱이(피부)·마음(뜻)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 즉 6근과 그 대상인 물질(色)·소리(聲)·냄새(香)·맛(味)·촉감(觸)·사물 혹은 현상(法)의 6경, 그리고 이 6근·6경을 연(緣)으로 해서 생기는 여섯 가지 마음의 활동, 즉 6식을 합한 것이 18계이다.

5식은 안식·이식·비식·설식·신식을 말하며, 제6식인 의식과 구분해서 앞에 있는 다섯 가지 식이란 점에서 전5식(前五識)이란 이름이 붙었으며, 의식은 전5식 다음의 제 여섯 번째 식이라는 의미에서 제6식이라

칭한다. 이처럼 5근(五根)이 5경(五境)을 만나 일어나는 식을 전5식(前五識)이라 부르는데, 이 전5식은 매우 현재적 이어서 당장 느끼는 대로 생겨나는 인식이다. 이와 같이 식(識) 가운데 안식·이식·비식·설식·신식 등 전5식은 안·이·비·설·신 등 5근(根)이라는 육체의 다섯 부분에 의지해 활동하는 심식(心識)들이다.

6근(根)·6경(境)·6식(識)의 합이 18계(十八界) 유식학은 물질적인 대상 보다 인간의 인식을 중시

여섯 가지 식(識)으로 초기불교가 심식에 대한 설명을 하였지만, 대승불교 유식(唯識)에서는 8식설 즉 여덟 가지의 심식으로 정리하게 된다. 그 중에 기본적으로 6식이 그대로 유식에 받아들여지고, 여기에 제7식과 제8식을 포함해서 여덟 가지의 식(識)으로 나누는 것이 정리된 유식의 특징 중의 한 가지다. 이렇게 해서 작계는 여덟 가지의 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크게는 전5식과 제6식을 하나로 묶고, 제7식과 제8식을 더하여 세 가지의 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들 심식은 능히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는 의미로 능변식(能變識)이라 한다. 가장 근원이 되고 발생순서가 앞서는 제8식이 초능변식, 또는 제1능변식이 되고, 제7식이 제2능변식이 되며, 전5식과 제6식이 합하여 제3능변식이라 불린다.

불교에서는 존재의 인식방법을 외부세계에서 출발점을 삼지 않는다. 철저하게 존재

의 근원인 '나'의 감각기관에서 출발하여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타 종교와의 차이점이다. 불교는 존재의 출발점인 여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허망한 '나'와 망상된 '세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깨달음을 얻고 나면 6근은 '나'라고 착각하지 않고, 대상인 6경을 '세계'라고 집착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허망한 것임을 가르친다. 특히 유식학은 대상인 물질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대상보다 오히려 인간의 인식을 중시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인간의 인식작용이 무한하듯이 또한 물질적인 대상도 다양한 각도로 보여질 수 있다. 물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범위가 넓어진다 보면 물질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물질적인 풍요에 의하여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물질의 개발과 함께 인간의 내면적인 수행과 노력으로 바른 인식을 얻고자 노력해야하며 이를 통하여 바른 행위를 하게 되고, 그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달성하고자 하는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실지사 덕광 정사 편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

인연이어서 과(果)반응은 우주만유 법칙이라 좋은 인을 지은 이는 좋은 과를 받게 되고 나쁜 인을 지은 이는 나쁜 과를 받게 된다.

전생 인을 알려 하면 금세수행 받는 그것이고, 내생 과를 알려 하면 금세 짓는 그것이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만약 인연 없게 되면 모든 법도 없느니라.

<종조법설집 제 2장 수행(修行)편, 137p>

내마음의 등불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실지사 덕광 정사님은 건화사 법상 정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실지사 교도 광고

LEVAIN NATUREL

주방세제!!

아직도 액체만을 고집하시나요?

르방나투리셀은 천연원료 기반,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피부에 좋은 제품

대표 천민수 | 구매처 010 5248 0322 | 개당가격 5,000원



불안과 두려움, 삼밀관행(三密觀行)으로 용맹정진

밀인사 록경 정사

육대무애상유가(六大無礙常瑜伽)
사종만다각불리(四種曼荼各不離)
삼밀가지속질현(三密加持速疾顯)
중중제망명즉신(重重帝網名即身)

또 삼밀을 우리생활에 확대하여 해석하자면

거수동족무비신밀(舉手動足無非身密)
개구발성개시구밀(開口發聲皆是口密)
기심동념총시밀(起心動念總是意密)
이 되어야 바로 우리 사는 이 세계가 불국정토가 되는 것이다

계승
1. 우주주의모든형색 법신이불신밀이요
이우주의모든음성 법신구밀설법이며
형색음성이밀에서 활동하는그진리는
그모두가우주진리 법신여래그삼밀이
분화하여있으므로 법계법신의밀이라.

2. 진언행자삼밀행은 모든진리체득하는
진언비밀보리도며 즉신성불계단이라
여래삼밀행자삼밀 일어평등한것으로
행자개체연기하여 평등법계자증한다
<중조법설집 p43>

생활 시 불법, 불법 시 생활

은 세계가 코로나19 공포 속에서 불안 해 하고
있지만 시간은 무심하게도 쉼 없이 흘러 상반기
49일 불공 회향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총지종 교도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생활시불법(生活是佛法),
불법시생활(佛法是生活)'의 수행법으로 가정에서
잘 실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종교는 무엇
자신의 생활에 젖어 들었을 때라야 비로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위기에서 우리
종단의 수행법인 삼밀관행(三密觀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 보고자 합니다. 삼
밀은 행자와 범불이 직접 상응하는 것입니다.
진리(교리)적인 면에서의 삼밀과 현실(생활)적
면에서의 삼밀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라야 제
대로 실천하는 삼밀관행자의 모습이 되겠지요.

서원당이나 가정에서 연화좌(방석)위에 바른
자세로 밀인을 결한 근엄한 모습은 그대로가
신밀(身密). 매일 아침 뉴스를 접하는 마음

은 누구라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확진자수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불자들이 정부의 시
책(개인예방수칙을 철저히)에 긍정적인 자세로
이행함이 신밀(身密)이지요.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

49일 불공중이라 이 기간에는 10시 공식
불공을 시작으로 진호국가 불공까지 사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1시간 30분 정도는
입으로 진언만을 염송하니까 구밀(口密). 긍정
적이고 따뜻한 한마디의 말은 자라나는 나무

종교, 자신의 생활에 젖어 들어야 비로소 '가치' 유연중생들의 은혜를 망각해 왔는지 참회해야

의 뿌리에 영양제 역할을 하고 부정적이고 격
한 한마디의 말은 나무뿌리를 썩게 하는 독약
이 됩니다. 미국의 어느 식물학자가 가지 있는
선인장을 보며 매일 "나는 너를 공격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 너를 사랑 한다." 고 하여 가지 없
는 선인장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란을 겪으면서 감히 상상도 못한
광경! 마스크 산다고 선 건 대열, 그나마 살 수
있어서 다행이지요. 현재는 사정이 조금 달라
졌지만 그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입으
로 너무나 많은 업을 지었기에 입을 막아야 그
나마 위험에서 보호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말 희망
적인 말이 자가 방역이 된다고도 합니다. 이렇
듯 구업(口業)단속을 잘 하여 고운 말 바른 말
하는 행이 구밀(口密)이지요.

연화좌에 앉은 근엄한 모습으로 본존을 관
하고 진언염송하면서 자성불을 찾았다면 의밀
(意密).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흔들고 있으니
우리 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호국가불공을
여느 때보다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반
드시 화답이 있을 겁니다. 산에서 아무 생각 없
이 '야호'를 외쳐도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현재의 상황을 쳐하고 보니
무탈하여 아주 평범한 일상! 그것이 대단한 행

복이었음을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런 행복 속
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 속
에서 주위의 귀한 유연중생들의 은혜를 망각하
고 살아왔는지 참회한다면 진실한 불자로 거듭
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의밀(意密)이지 않을
까 싶네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개인예방수칙중의 하
나인 외출을 삼가 하면서 그간 우리가 너무 바
쁘게 앞만 보고 분주하게 살았으니 이 시점에
서 고요하게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기회로 삼
아봅시다. 또한 코로나19가 전파력이 워낙 세
어 결국 주위로부터 감염되니 너무 자신만 생

각하고 정작 자신의 주위의 가까운 이들을 외
면하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고요하게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사회적 거리두기란 수칙을 곰곰이 생각해 보
면 그동안의 삶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람
을 멀리하고 살아온 것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삶의 균형을 잡아
봅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게 인간이 당
하고 있는 황당무계한 현실 앞에서 자신에게 조
차도 겸허한 자세로 평소 유정무정물과 공존하
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못 생명과 자연
의 소중함을 저버리고 살아온 인연과보의 결과
임을 자각하면서 참회하는 불자가 되기를 다
함께 노력합시다.

상반기 49일 불공회향일이 비록 며칠 남지
않았지만 삼밀관행(三密觀行)의 용맹정진원
력으로 코로나19가 조속히 소멸되고 소원성취
이루시길 지심으로 합장 발원합니다.



모든 법은 마음으로 짓는 것

9.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항상 눈의 속인 바가 되며, 귀의
속인 바가 되고, 코의 속인 바가 되며, 입의
속인 바가 되고, 몸의 속인 바가 되는 것이
니, 눈은 다만 능히 볼 뿐이요 듣지 못하며,
귀는 다만 들을 뿐이요 능히 보지 못하고,
코는 능히 냄새를 맡지만 소리를 듣지 못하
며, 입은 다만 맛을 볼 뿐이요 냄새를 알지
못하고, 몸은 춥고 더운 것만 능히 알고 맛
을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다섯은 다 마
음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마음이 근
본이 되는 것이다." 하시었다. (아함정행경,
阿含正行經) <불교총정 제 2장 불법(佛法),
제 2절 법의 연기(緣起) 68p>

10. 마음이 생기면 모든 법이 생기고, 마
음이 멸하면 모든 법이 멸한다. (기신론, 起
信論)

마음의 부름을 받는 몸은 그저 마음의 심
부름뿐입니다. 내 눈은 그냥 볼 뿐인데 마음
이 더해져 '보기 좋다, 보기 나쁘다' 마음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 귀도 소리를 들을 뿐
인데 마음이 붙어 '듣기 좋다, 듣기 싫다' 마
음이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법
은 마음이 근본이 되고, 모든 법 중에 또한
마음이 으뜸입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모든
법도 없고, 오직 마음만이 몸이니 입이니 말
합니다. 범구경 첫머리에 이런 구절이 있습
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똑
같은 것을 보고 듣더라도 이 마음의 작용에
따라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의 결과가 때로는
선업, 때로는 악업이 되기 때문에 즐겁거나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
자국을 따르듯이.' 그러므로 늘 스스로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반
드시 착용하기,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
기, 기침 예절을 지키자는 등 기본적인 예방
법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
자들은 '마음 다스림' 실천이 바로 '마음 방
역'임을 인식하면 어렵고 험난한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 다스림'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
다.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곧 소멸될 것이다.', '확진자는 빨리
나을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마음가짐으로
서원을 세우고 염송정진 하는 것입니다.
큰 공장의 기계가 돌아가는 데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부품들이 필요하지만 그중의
아주 작은 나사 하나라도 제 자리를 이탈하
면 그로 인해 그 공장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
다. 이렇게도 위중한 시기에 내가 하는 한마
디 서원이 무슨 역할을 하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긍정과 희망적이고 절절한 서원은
마치 이 작은 나사와 같은 것입니다. 목
소리가 작은 사람도 마이크를 통해 큰 소리
를 낼 수 있듯이 우리의 간절한 서원 한마디
도 부처님을 통하면 큰 파장을 일으키며 결
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허하면 감각이나 몸살 등 병이 나뉘
이 마찬가지로 마음이 허하면 번뇌가 들어
옵니다. 평소 자신에 맞는 운동을 통해 몸
관리를 하듯이, 불안한 마음도 각자의 근기
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잘 다스려야 합니
다.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나 범부의 불안한
마음은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엄
마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편안하고 든든했
던 어릴 적 기억이 누구에게든 있을 것입니
다. 우리 불자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곁에는 어머니와 같은 관세음보살님
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관세음보살님
과 함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불안한 마
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굳은 신심과 밝은 지
혜로 번뇌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앞에 용맹정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행하고, 몸으로 행
하고, 뜻으로 행하는 세 가지 행동 중에서
뜻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하
셨습니다. 뜻은 마음입니다. 말을 하지 않
고,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품은 뜻을 내
자신(자성불)이 알고 부처님이 알고 계십니
다. 뜻을 두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
니다. 좋은 인은 좋은 과를 낳고 나쁜 인은
나쁜 과를 낳습니다. 작은 뜻일 지라도 마음
일으키는 것 자체가 큰 뜻을 명심하시고,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 발에 희
망의 씨를 뿌려 행복의 싹을 틔워 나가시
기를 지심 서원합니다.

BBS 불교방송 30th 추억공모전

"30년의 동행, 감동의 미래로!"



공모기간 2020년 2월 1일 ~ 4월 30일까지

공모내용 BBS불교방송의 역사와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모든 자료

사진
- 1990년 개국부터 현재까지 촬영된 BBS불교방송 사진
- BBS불교방송 행사, 방송현장 사진
- BBS불교방송 건물을 배경으로 한 인물, 풍경사진

방송음원 동영상 - BBS와 함께한 추억이 담긴 방송 음원 및 동영상 자료

수기·사연 - BBS 애청자 분들의 추억이 담긴 사연 및 수기

문의
BBS불교방송 기획홍보부 02-705-5108 | bbsfm1@naver.com

응모방법

메일 bbsfm1@naver.com

우편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15층 BBS불교방송 경영기획국

※ 우편과 이메일 접수 시 공모전 신청서 함께 제출
※ 공모전 신청서 : BBS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시상내역

최우수상	1명	문화상품권 30만원
우수상	2명	문화상품권 20만원
장려상	3명	문화상품권 10만원
특선	20명	기프트콘
입선	150명	소정의 BBS불교방송 기념품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BBS불교방송 홈페이지(www.bbbs.co.kr) 참고

김천 작가의 미얀마 순례기<마지막 편>

느린 시간 체험과 명상, 마음으로 전해지는 불교의 힘

미얀마는 역사의 호리병이다. 불교의 옛 가르침을 받아들여 고스란히 담아두고 있다. 바간은 미얀마에서도 가장 오랜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는 곳이다. 미얀마를 찾는 사람들의 절대다수는 바간을 놓치지 않는다. 바간에 가면 과거 미얀마의 영광과 불교문화의 장엄함을 만날 수 있다. 상좌부 테라와다 불교는 바간 시대에 정착했다. 오늘 미얀마 불교의 모습은 그 시대의 유산인 셈이다.

가르침이라 굳게 믿는다면 이 로카난다 파고다를 등대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로카난다 파고다 인근에는 사미승들이 수행하는 수도원이 있다. 관광지에서도 떨어져있고 인적도 없는 곳인데 잘 갖춰진 수도원에 약 300명 이상의 사미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간다. 사시 때가 되면 인근마을과 단체의 불자들이 공양을 준비하여 수도원으로 온다. 발우

바간은 세계문화유산일 뿐 아니라 관광지로도 이름 높다. 하지만 불교를 믿는 이들에게는 관광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 거대한 건축물은 언제나 세우고 부술 수 있지만, 마음속 믿음과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은 쉽게 세우지도 가볍게 허물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 장엄한 신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대지 위 지평선 끝까지 닿은 바간의 파고다들이다.

‘세상의 안락’이란 뜻의 파고다, 로카난다 쉐지곤, 부처님 머리뼈와 앞니 사리 안치

바간 유적은 대략 1,000년 전의 것들이다. 메마른 대지 위에 약 2,000개 이상의 파고다가 퍼져있다. 눈 닿는 곳 어느 곳에도 불탑이 있다. 다보여래가 수많은 불탑의 형상으로 등장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묘법연화경 견보탑품의 장면이 현실에 펼쳐진 모습이다. 미얀마 역사 속에서 살아남아 대지를 장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여 지켜온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를 들고 순서대로 공양물을 받아 식사를 마칠 때까지 불자들은 이리저리 살피며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양 때 엄숙하던 어린 승려들도 식사를 마치면 천진하게 웃으며 노는 모습은 인상 깊다.

미얀마를 찾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느리게 흐르는 시간을 경험하기 위한 관광이고, 둘째는 명상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에 불교 열풍의 근원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얀마가 있다. 미국 명상지도자 1세대 인물인 조셉 골드스타인이나 샤론 샬즈버그 등은 모두 미얀마의 위빠사나 명상법을 배우고 수행한 후 서구세계에 불교와 명상을 전한 이들이다. 그들의 영향과 미얀마식 수행센터의 매력 때문에 미얀마를 찾는 이들은 줄을 잇는다. 가르침을 배우러 세계에서 찾아오는 사실은 놀랍다.

바간의 파고다 중 가장 유명한 곳은 쉐지곤 파고다이다. 바간 최초의 파고다이고 미얀마만의 독창적인 양식을 처음 확립한 불탑으로 알려져 있다.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부처님 머리뼈와 앞니 사리를 안치하였다고 전한다. 사리를 등에 실은 코끼리가 바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멈춰 터를 잡았다는 전설이 있다. 불탑은 화려하고 잘 보존되었으며 바간의 파고다 중 으뜸으로 꼽힌다. 그밖에도 일몰로 유명한 쉐산도 파고다, 보는 방향에 따라 부처님의 다른 표정을 볼 수 있는 아난다 파고다, 보드가야의 대탑을 본뜬 부파야 파고다 등 어느 곳을 둘러도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미얀마의 명상센터들은 대부분 후원자들의 시주에 의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수행을 원하는 이라면 신분과 인종, 성별에 상관없이 찾아가 머무를 수 있다. 그에 필요한 것들을 차등



양곤 시내

없이 제공한다. 때에 맞춰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수행의 상태를 상담하고 점검받을 수 있다. 목을 굶고 먹을 것을 차별 없이 제공한다. 사뭇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미얀마 불교는 해내고 있다.

들이 줄지어 있다. 인적은 찾기가 어렵고 넓은 수도원이 내내 적막하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인 마하시 수도원은 양곤 시내 쉐다곤 파고다 인근에 있다. 수도원은 넓은 터를 잡았다. 인근에는 마하시 수도원 뿐 아니라 대형 명상센터가 여러 곳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수도원 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공양 등 행사를 위한 대형 홀이 있고 오른쪽으로 여성 수행자들의 명상홀이 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법문이나 강의를 위한 큰 건물도 보이고, 수행자들이 거거하는 작은 집

더 깊이 들어가면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넓은 홀을 만나게 된다. 사람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육신과 마음을 살피고 있다. 고요하며 집중하는 모습으로 모든 행동은 절제된 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재가자와 승려들이 함께 자신의 수행에 몰두하고 있다. 넓은 홀 안에서 혹은 바깥 주변에서 동작 하나 숨결 하나를 놓치지 않고 살피는 모습이 눈에 띈다. 잡담을 하거나 동요하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수도원 여기 저기 수준과 단계에 따라 수행하는 여러 공간이 있고, 길에서 느리게 걸으며 자신을 살피는 이들도 있었다. 공기는 무겁지 않았고 걸보기에도 수행은 진지해 보인다. 열반은 자유이며 그 자유를 향하는 길을 나름대로 고요히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종교적 유산은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이 있다. 건물과 의식 등의 유형의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띄지 않지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가르침과 신심이다. 불법의 생명력은 앞 다투어 짓는 거대한 건물과 과시적인 교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가르침에 대한 확신으로 심밀과 육행을 끊이지 않게 이어가는 노력이 불교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미얀마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마하시수도원



바간고대파고다



바간파고다

불교총지종 그때 그 시절 I

총지사 본존 봉안 불사

총기 31년(2002년) 4월 23일

장 소: 총지사 서원당
참 석: 전국 교도 420여명

혜암 통리원장 북한방문

총기 31년(2002년) 4월26일 - 5월4일

주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총지종 통리원장 혜암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혜초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스님, 진각종 총무부장 해인 정사 참석

흥국사 신축도급계약

공사기간: 총기 31년 (2002년) 4월26일 - 12월31일

총지사 신규 만다라 및 후불탱화 제작 계약

계약일: 총기 31년(2002년) 4월 19일
완성납품일: 총기 31년 7월 15일
시공인: 만다라갤러리

법상원 기로스승 열반

총기 33년(2004년) 4월 3일 지병으로 열반
발인식: 4월 5일, 부산 삼밀사
참석자: 부산경남교구 스승, 교도, 유가족

제14대 우승 통리원장 취임식 법공 통리원장 이임식

총기 33년(2004년) 4월 20일

장소: 총지사 서원당
시정정사 집공, 지성정사 사회
전국스승 참여

불꽃처럼 일어난 창종의 열망 그리고 불교총지종

상 회당 조사와 만남, 한국현대밀교의 물꼬를 트다.
중 한국밀교, 그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다.

하 불꽃처럼 일어난 창종의 열망 그리고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

준제법에 대한 연구와 실수를 마치다

원정대성사는 “밀교는 의식(儀式)을 중요시하며, 사교이상(事敎二相)이 분명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밀교의 진언(眞言)과 인계(印契) 등 밀교의 의례와 조직을 엄격히 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진각종 내의 모든 역경(譯經)이나 저술을 비롯하여 교상판석과 사교이상을 몸소 정립하려 했다. 그러던 중 원정대성사는 진각종의 교상과 사상 가운데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점이 더 굳어지기 전에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의례정립을 위한 불사에 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차제에 일본불교대표단의 지적은 준제법 발굴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밀교의 올바른 수행법을 알지 못하고 오직 육자진언인 음마니반메흠의 염송과 이른바 심공에 의지하여 자신의 체험담을 교도들에게 들려주던 수준에서 탈피하고자 준제법에 대한 연구와 실수(實修)를 마친 후, 1971년 마침내 이의 시행을 종단에 건의했다. 그러나 예상하게도 이 중요한 작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정통밀교의 정립을 위하여 애쓰던 성사를 따르고자 하는 대부분의 승직자와 교도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밀교에 대한 생소함과 이해부족, 기독교의 종교적 편견에 인하여 뜻밖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즉, 종조 때부터 시행해

오던 비로자나불의 결인에 관세음보살의 진언으로 염송하던 수행법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고집했다. 회당조사의 재제시에 시행했던 것은 무조건 옳다고 여기고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정법을 외면한 일이었다. 이것은 신흥종단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정통밀교종단으로 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애석한 사건이었다.

길고 길었던 조선조(朝鮮朝) 5백년간 거의 빛을 잃고 흔적도 없었던 밀교가 원정대성사의 손에 의하여 잊힌 비법(秘法)과 경궤(經軌), 다라니(陀羅尼)와 수법(修法) 등이 발굴되면서 그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찰나 이러한 좌절은 한국현대밀교의 크나큰 비상을 가로막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준제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진각종은 연일 논쟁을 그치지 않았다. 교리적으로는 불합리하나 회당조사 때에 제정한 기존의 법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준제법의 채택으로 정통밀교의 정립을 모색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종단은 두 파로 나뉘어 각자의 주장을 팽팽하게 펼쳤다. 종단의 동요는 심각한 사태까지도 우려되었다. 처음에는 원정대성사의 합리적 설명에 수긍하던 많은 승직자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체제에 안주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 개탄

이에 원정대성사는 이십여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키워온 진각종을 회당개조(開祖)가 임멸(臨滅)한지 불과 십 년 만에 교각살우(矯角殺牛: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임)의 어리석음을 범할 수 없다고 개탄하고, 그해 12월 진각종 총인칙을 비롯한 모든 직책의 사퇴를 선언함과 동시에 회당조사의 영전(靈前)에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진각종을 떠났다. 종단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종적마저 감추고 첩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생을 걸고 중생구제의 큰 서원을 세웠던 불퇴전(不退轉)의 의지가 어찌 그로써 끝날 수 있었을까. 원정대성사께서는 1972년 1월 1일 새벽을 기하여 영등포구 상도동 은거(隱居)에서 정순(正純)하고 완벽한 밀교종(密敎宗)의 창종을 위한 정법체득(正法體得)의 백일



정진에 들었다. 백일정진이 끝나는 4월 7일 밤, 한 백수노인(白首老人)으로부터 금관을 받았으며, 그 이튿날 밤에는 한줄기 서광과 함께 노인으로부터 “대승장엄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과 준제관음법(准提觀音法)으로 교화(敎化)하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원정대성사는 이것이

비법(秘法), 경궤(經軌), 다라니(陀羅尼)와 수법(修法) 등 발굴 1972년 12월 24일, 정통밀교 ‘불교총지종’ 개종불사(開宗佛事)

관세음보살께서 꿈에 나타나시어 “중생의 고난을 없애고 그들의 바램을 만족시켜 주라.”는 가르침을 널리 나타내 보이신 것임을 활연(豁然)히 깨닫고 곧바로 교상확립(敎相確立)에 착수하였다.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기틀을 갖춰

우선 정통밀교 종단임을 표방하기 위하여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모시고 『대일경(大日經)』, 『금강정경(金剛頂經)』 및 『대승장엄보왕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아 교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에 의거하여 육바라밀에 의한 대승보살도의 실천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교리의 기틀을 갖추었다. 여기에 교화의 방편으로서 준제법을 주축으로 삼고 증익(增益)·식재(息災)·경애(敬愛)·항복(降伏)법 등의 사종수법(四種修法)을 채택하였으며 아사리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밀교비법과 관법(觀法)을 경전에 의거하여 마련하였다.

이리하여 마침내 원정대성사의 각고의 정진과 부처님의 가지력(加持力)에 힘입어 정순하고 완전무결한 정통밀교의 조직과 체계를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 해 8월 21일, 드디어 관음(觀音)의 묘지력(妙智力)에 힘입어 정순(正純)하고 원숙(圓熟)한 정통밀교의 마니보주(摩尼寶珠)를 비장(秘藏)한 채 동대문구 상봉동으로 거주를 옮기면서 은거생활을 마감하였다. 그동안 성사의 행방을 찾아 동분서주하던 진각종의 지혜 있는 스승

들과 수많은 교도들은 원정대성사의 출현에 입교개종(立敎開宗)을 재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중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마침내 1972년 12월 24일, 서울 상봉동에 서울선교부(宣敎部)를 개설하여 개종불사(開宗佛事) 겸 창종식을 거행하였으며, 종명을 ‘불교총지종(佛敎總指宗)’으로 정하여 정통밀교종의 성립을 만천하에 선포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정통밀교가 주옥같은 진언과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종수법을 비롯하여 이론적인 교리가 정연한 교상과 사상을 갖추고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후 한국현대밀교사상 최초로 삼매야계단(三昧耶戒壇)과 금강계단(金剛界壇)을 열어 관정식(灌頂式)을 베풀고 정통밀교를 전수할 아사리(阿闍梨)를 배출하였다. 또한 『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국내 최초로 번역하여 소의경전으로 삼고 대승불교의 연장선상에 밀교가 자리하고 있음을 천명했다.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 이후 교세는 불꽃처럼 일어 창종 7년 만에 30여개 사원을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진각종 시절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교리를 새롭게 정

비하고 행정기관인 통리원과 함께 교리적인 면을 뒷받침할 연구기관으로서 법장원을 신설하고 교도들의 참여와 신행활동을 돕기 위하여 신정회라는 모임도 만들도록 했다. 또한 ‘처처불공, 시시불공(處處佛供, 時時佛供)’을 내세워 언제 어디서나 쉽게 불공을 올릴 수 있도록 모

든 불사와 식순을 간소화하였다. 그야말로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어려운 밀교수법의 대중화에 진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장계와 금강계의 양부 대법(大法)의 완성을 바라보며 명실상부한 정통밀교종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하던 중 대성사의 세언이 다하여 후인들에게 대업을 미루고 임적하였다.

1980년 9월 8일 밀법 홍포의 대원(大願)을 제자들에게 부촉(咐囑)하며 원정대성사는 74세를 일기로 이 세상의 인연을 다하고 임적하였으니, 실로 한국현대밀교의 중흥을 위하여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원정대성사의 밀엄국토건설과 정통밀교의 수립에 대한 대원은 총지종이 한국최초로 양부만다라를 완성하여 봉안한 것에서도 나타났듯이 끊임없이 계승, 발전되고 있다. 원정대성사의 입적과 원로 스승들의 잇따른 유고로 요원의 불꽃처럼 일어나던 교세가 잠시 주춤한 적도 있었으나 이제 총지종은 새로운 도약의 자세로 꾸준히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 이 땅에 처음으로 현대 밀교의 물꼬를 열고 대승불교의 새날을 개척한 원정대성사의 가지신력(加持神力)이 온 누리에 호국불교의 대비원(大悲院)과 함께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불교총지종 그때 그 시절 II

불기2549년 ‘나라안정 기원법회’

총기 34년(2005년) 4월 20일

장소 : 불광동 그랜드 힐튼 호텔
노무현 대통령부부, 정관계인사, 불교계 대표단, 불교시민단체 참석, 우승, 시정, 의강, 법성, 대원, 지광, 원승 정사, 총지화, 선도원, 환수원, 밀공정, 법상인 전수 김은숙, 이연수, 최재숙, 윤승호, 이상철 교도 참석

종조법설 명상용 CD제작

총기 35년(2006년) 4월 10일

제 목 : 내모든 것은 내 허물의 그림자라
분 량 : 1시간
수 량 : 카세트 테이프, CD 각 2,000개

제1차 세계불교포럼 참석

총기 35년(2006년) 4월 12일 - 18일

주 제 : 세계화합은 마음으로 시작하자
부 제 : 불교의 단결과 협력, 불교의 사회적 책임, 불교의 평화적 사명
장 소 : 항주, 주산(보타 낙가산, 상해)
참 석 : 우승 통리원장, 화령 교육원장외 1인

국민화합기원대법회 참석

총기 36년(2007년) 4월 30일 18시

장 소 :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2층
주 최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참 석 : 집행부, 서울경인교구 스승 및 교도 간부

제2회 한국-대만 불교문화교류 참석

총기 39년(2010년) 4월 5일-10일(5박 6일)

장 소 : 대만(불광산사, 법고산사, 자제공덕회 등)
참가자 : 인이호, 박종한 교무

전법관정 수계

총기 40년(2011년) 4월 13일 총지사

- 계사 아사리
대야사리 : 종령 효강 대종사
중계아사리 : 해암, 원봉, 우승, 총지화
전계아사리 : 통리원장 지성
교수아사리 : 법공
갈마아사리 : 덕화사 법등
결계아사리 : 시법사 환수원, 선립사 심지장
- 수계 대상자
인선, 법일, 자행정, 서령, 덕광, 묘홍, 지현, 보현, 정원

밀교연재

밀교문화와 생활(39)

마음과 밀교수행 ⑭



법경 정사 (정각사 주교/ 철학박사/ 동국대 강사)

중생의 마음이란 그릇된 망심(妄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올바르게 행하려는 마음도 있다. 가영심(歌詠心)이나 무심(舞心), 격고심(擊鼓心) 등이 그 마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도 지나치게 넘치거나 숭상한다면 아니 갖는 것만 못하다.

가영심(歌詠心)

가영심(歌詠心)은 노래하는 마음이다. 무슨 노래인가. 부처님 법을 전하는 노래다. 『대일경소』에서 가영심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이것은 전법(傳法)의 소리를 비유한 것이다. 세상 사람이 곡(曲)을 남에게 전해주어 선교(善巧)를 얻고 나서 다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주함에 갖가지 미묘한 소리를 내니, 듣는 자는 환희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노래를 들려준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노래하는 사람은 볼러서 즐겁고 듣는 사람은 들어서 즐겁다. 모두 환희한 마음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다. 여기에 선교를 얻는 다 것은 최상의 일이다. 커다란 공덕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선교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 다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더 좋은 소리를 들려주니 그 환희는 배가(倍加)된다. 선(善)은 선(善)을 낳는 법이다. 베풀은 나눔이요, 나눔은 함께 하는 것이다. 대승 보살의 표본이자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노래로써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 선심(善心)으로 가는 길이다. 즉 수행하는 마음이다. 이를 『대일경소』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이 마음은 다른 이로부터 정법(正法)을 듣고 자 하며, 내가 중생을 위하여 되돌려서 갖가지의 문구로서 장엄하고 분별하여 연설해서 이 묘음(妙音)으로 처처마다 듣고서 알게 하겠다는 마음이다.’ 이 마음은 상구보리 화화중생의 보살심이다.

자기 수행과 함께 다른 이를 위해 회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회향이란 자기가 닦은 수행과 그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깨달은 자는 무명 중생을 깨우쳐 주고, 닦은 사람은 중생을 선도(先導)하고, 재물 많이 가진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지식과 재능이 풍부한 사람은 부족한 자를 위해 기부하는 것이다. 모두 일체중생을 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가영심은 모두를 이익되게 하는 마음이다. 이타심(利他心)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무심(舞心)

무심(舞心)은 춤추는 마음이다. 춤추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을 맑고 기쁘게 해 주는 마음이라고 한다.

『대일경소』에서 무심(舞心)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무엇을 무심이라 하는가. 법을 잘 수행하여 더욱 향상함으로써 갖가지의 신변(神變)을 행하려는 것을 말한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팔 다리를 뻗고 움직이는 것을 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신변(神變)도 역시 그러하다. 일찍이 없었던 갖가지의 일을 나타내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맑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춤추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다.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며 자리아타(自利利他)의 마음자리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넘치거나 단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의 경계를 주의해야 한다. 이를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지(성취)를 지나치게 숭상하며 방편으로 구하는 것은 청정한 마음을 장애하는 것일 뿐이다.’ 무심(舞心)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오히려 청정하지 못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다스리는 방법을 『소』에서 이르기를, ‘제개장삼매(除蓋藏三昧)로써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신통(神通)으로 멸정(滅定)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신통(神通)으로 멸정(滅定)을 일으키지 않는 다 함은 멸정에 이르는 것이 신통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는 정도(正道)가 아니라 사도(邪道)이며 외도(外道)이다. 바른 방편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바른 가르침에 의해 바른 방편으로써 정(定)에 이르러야 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바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법실상(諸法實相)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각이며 여실지견(如實知見)을 말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여여(如如)하게 보아야 한다. 헤아려서 아는 것이다.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선정(禪定)이다.

가치신변에 탐착되어서는 안 되고, 조그마한

영험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말이다. 수단이 목적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수행기도에 비유한다면, 진언염송이 목적이 아니라 진언염송을 통해서 올바른 행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 것이다.

격고심(擊鼓心)

격고심(擊鼓心)이란 스스로 북을 치려는 마음이다. 왜 북을 치는가. 법에 잘 따르기 위한 것이다. 법을 잘 따라서 결국 깨우침을 얻게 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일경소』에서 격고심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무엇을 격고심이라 하는가. 스스로 법고를 치려는 마음으로서 법에 잘 따르는 것을 말한다. 북은 중생들을 경계하여 깨우침을 얻게 한다.’

중생을 깨우치게 하려는 마음을 법고(法鼓)에 비유하였다. 실제로 사찰에서 예불을 드릴 때 법고(法鼓)를 치는데, 북을 치는 이유는 시방세계를 깨우치고, 축생(丑生)의 부류를 제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 법고(法鼓)는 부처님의 법을 말하는 것으로, 법고를 울린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부처님의 법을 널리 알린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불법(佛法)이 널리 세간에 전하는 것을 북소리가 널리 퍼지는 것에 비유하고, 교법으로 중생의 번뇌를 없애는 것이 마치 친치고 있던 군사들이 북소리가 울리면 전진해 적을 무찌르는 데 비유하기도 한다.

그런데 북을 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단지 말재주를 익혀서 중생을 깨우치려고 한다면 이는 온당치 않다고 말한다. 술수(術手)의 방편으로 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일경소』의 설명이다. ‘만약 수행하는 사람이 중생은 긴 밤에 혼침(昏寢)하니, 내가 갖가지의 걸림 없는 변재(辯才)를 익혀서 대법고(大法鼓)를 두드려 이모써 깨우치게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청정한 마음을 방해할 뿐이다.’ 갖가지의 걸림 없는 변재(辯才)로써 법을 설하고 깨우치려고 한다면, 이는 모래로 밭을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말만 번드레한 것은 바른 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깨우치도록 해야 하는가. 『대일경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일찍부터 한량없이 많은 언언다라니(語言陀羅尼)를 증득하여 천고(天鼓)의 묘한 소리로써 널리 모든 중생들에게 고하겠다고 생각해야 한다.’ 즉 진언다라니로써 법을 설하고 진언다라니의 소리를 널리 퍼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천고(天鼓)의 묘한 소리며, 진언의 묘음(妙音)이다. 천고(天鼓)는 도리천(兜率天)의 선법당(善法堂)에 있는 북으로, 두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묘음(妙音)을 내는 북이다.

그러면서 ‘세간의 적은 이익으로써 일대사의 인연을 방해하지 말라’고 한다. 세간의 적은 이익은 현세적인 이익이다. 그러나 일대사의 인연은 불법을 만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인연이다. 그것은 곧 진언다라니의 수행이다.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성취자 위루빠(Virūpa)

위루빠는 데와빨라왕이 통치하던 시대 동인도의 프리뿌라에서 태어났다. 위루빠는 수행에 뜻을 두어 당시 남인도에는 소마뿌리(Somapuri)라는 곳으로 향하였다. 소마뿌리는 번역하면 ‘달의 도시’라는 뜻인데 밀교가 성행하여 수천의 승려들이 수행하던 곳이었다. 위루빠는 밀교를 공부하거나 관정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대담하게 처음부터 와즈라와라히(Dakini Vajravārahi) 관정을 요구하였다. 위루빠는 12년 동안 와즈라와라히 다라니를 백만 번 이

상 염송하였으나 수행의 진전이나 기별이 없었다. 위루빠는 낙담하여 가사를 찢어 화장실에 버리고, 평소 하던 예불도 하지 않고 맨몸으로 널브러져 있었다. 이때 다끼니가 나타나 그가 버린 가사를 손에 쥐어주면서, “거룩한 수행자여! 수행을 포기하지 말라. 오직 모든 명칭과 개념이 허망함을 수습하라”라고 말하며 다음의 계승을 선했다.

범속한 유정의 마음이 곧 와즈라와라히의 핵심이네.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고 그대도 예외가 아니네. 당신은 경험 없는 어린아이와 같아 성취를 기대하는 소원이 있지만 그 보석은 아직은 연마되지 않았단다. 관념의 전환이야말로 최고의 수행, 조금도 부족함이 없단다.

위루빠는 스승 와즈라와라히의 조언대로 다시 12년을 더 수행하여 실지를 얻었다. 위루빠는 마을에서 비둘기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어느 날 비둘기가

한 마리로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사원의 승려들은 거처를 수색하여 비둘기와 술을 마시고 있는 위루빠를 발견하여 마을에서 쫓아냈다.

위루빠는 가사와 발우를 불상 앞에 놓고 떠났는데, 한 호수에 도착하여 큰 연꽃을 발견하곤 연꽃은 불상에 공양 올리고 나머지 연잎 위에 발을 걸치고 건너편까지 호수를 건넜다. 소마뿌리의 마을사람들은 비로소 위루빠가 성취자임을 깨달았는데, 승려들은 왜 비둘기를 잡아먹었는지 물었다. 위루빠는 “나는 잡아먹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곤 손가락을 뿜기자 그가 남긴 비둘기의 깃털들이 다시 비둘기가 되어 날아갔다. 이후 위루빠는 사원근처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위루빠가 편력할 때 갠지스강에서 강의 여신에게 음식과 먹을 것을 요청

했을 때 여신이 거절하자 갠지스강을 돌로 나누는 기적을 일으켰다. 까나사 띠에 도착했을 때 위루빠는 속소의 여종에게 술과 밥을 공양 받았다. 이를 과 반나절이 지났을 때 위루빠는 태양의 윤행을 정지케 하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크게 놀란 지역의 왕이 기적을 일으키는 자를 수소문했다. 그날 밤 왕의 꿈에 태양의 여신이 나타나 어떤 요기가 여관의 여종에게 음식 값을 지불해 주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어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그 마을에 야차신앙과 식인의 습관이 성행하였지만 이들을 모두 조복하여 개종시키고 불법을 수호토록 하였다. 이후 위루빠가 데비꼬파로 돌아왔을 때 쉬바신과 여신 우마가 33천을 지어 45만의 유정이 살 수 있는 정토를 공양하였는데 위루빠는 평생 행적을 계승으로 옮기고 자신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세간

유정들이 법을 알 도리도 없을 것이라 는 말을 남기고 정토에 왕생하였다.

와즈라와라히는 차크라스와라판트라(Cakrasamvara Tantra)의 주존 헤루카(Heruka)의 명비이다. 티베터로는 돌제팍모(Dorje Pakmo)라고 말하는데, ‘돌제’는 티베터로 ‘금강’이란 뜻이고 팍모는 돼지를 의미한다. 밀교의 불모인 와즈라요기니(Vajrayogini)의 분노존으로 어금니가 돌출되어 있고 오른쪽 귀에는 멧돼지의 형상을 달고 있다.

요기니는 여성 밀교수행자이다. 와즈라요기니는 불모(佛母)이며, 다끼니(dakini)라고도 한다. 붉은 몸에 해골을 든 형상은 자아를 극복하고 번뇌를 대략으로 수용하며 중생구제의 사명을 다한다. 인도와 티베트의 많은 밀교수행자들이 불모를 본존으로 모시고 수행에 정진하여 성취했다고 전한다.

수계사 교도

S-OIL 현곡주유소



착한가격! 좋은품질! 정품정량!

- 대표 최병철
주소 경북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1242-58
전화 054-745-5804 / 054-745-3083
핸드폰 010-2877-6137

“코로나 비켜라,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킨다”

총지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 8곳은 긴급 보육 중 의료진 못지않은 헌신과 노력, 아이들 안전 돌봄이 자처



코로나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의 개학이 4월로 연기된 가운데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안전 사각지대에서 오로지 보육교사들의 노력으로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강남구 초록어린이집, 일원어린이집, 힐스어린이집, 서초구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잠원햇살어린이집, 성남시 양지어린이집, 종로구 아동회관어린이집, 강서구 벗고을어린이집까지 총 8 곳이며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의료진 못지않은 희생과 노력으로 어린이들을 사고 없이 돌보고 있다.

현재 보육교사들은 모두 정상 출근하여 마스크를 낀 채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원할 수 있도록 등원 관리부터 꼼꼼하게 지도 중이다. 매일 교실과 보육실을 포함하여 실내외 환경 전체를 소독하고, 2주에서 한 달 간격으로 외부 업체로부터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에는 보호자를 포함한 외부인의 출입을 현관까지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현관, 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 손이 자주 닿는 구역은 교직원들이 수시로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포레스타7단지 어린이집 최유정 원장은 “아이들의 손이 자주 닿는 교재와 교구를 교사들이 직접 매일 소독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대청소를 하는 등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사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하루에 2회 이상 수시로 원생들의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컨디션이 안

좋거나 열이 나는 증상이 보이면 보호자에게 곧장 연락하여 아이의 상태를 알리고 하원 조치를 취하는 등 아이들의 건강 유지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아동회관 어린이집 진금선 원장은 “아이가 열이 나거나 기침 증상을 보이면 병원에서 단순 감기임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를 지참해야 등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급·간식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아이들의 간격을 넓혀서 테이블마다 최대한 적은 인원끼리 식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일원 어린이집과 아동회관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각자 가정에서 준비한 개인 식판과 수저를 사용하고 있다. 이외 어린이집들은 사용한 식판과 수저는 열탕 소독을 하거나 식기 세척기와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이용하고 있다.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성남의 한 교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양지 어린이집의 경우 정월 80명 중에서 현재 10명만 등원 중이다. 정동숙 원장은 “확진자가 나왔을 당시 모든 관계자들의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며, “다행히 교인이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주일에 두 번씩 개별적으로 직접 소통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의 2차 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렸다.



교사들은 등원하지 않은 아이들까지 살피고 있다. 잠원햇살 어린이집은 가정에서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미술 놀이, 신체 놀이 등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연령별로 재료를 준비해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김선희 원장은 “등원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교사들이 직

접 쓴 손 편지도 함께 전달했는데, 보호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힐스 어린이집도 보호자들이 어린이집 내부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키즈 노트’라는 모바일 어플의 알림장 기능을 통해 수시로 공지사항과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동안 가깝게 지내는 교직원들의 관리도 빠질 수 없다. 교사건강관리카드를 현관에 두고 매일 출퇴근 시 작성하게 하고 있다. 교사들의 퇴근 후 동선을 관리하여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경로를 어린이집에서 미리 자체적으로 알아두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을 대비한 예비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 초록 어린이집 이지희 원장은 “교직원들과 회의할 때 직접 대화하기보다는 단체 채팅이나 서면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원장은 “교사 18명 중 하루에 한 명씩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교사 건강 유지와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교사 운용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각 어린이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어른·어린이용 마스크나 방역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으나, 대부분 어린이집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하는 추세다. 현재 소독제 가격 인상으로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또 1년 동안 진행하기로 한 특성과 활동 계획이 취소되거나 대부분 변경되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사들의 피로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김태원 과장은 “산하 어린이집과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재단에서도 어려움을 잘 살피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재단 지원금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물품 구매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서호 기자
사진제공=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어린이집

아범은 괜찮냐?

코로나19는 삶의 일상을 바꾸어놓았다.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모임, 산책까지 꺼리게 만들었다. 집 밖보다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외출을 삼가고, 나갈 땐 꼭 마스크를 쓴다.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늘어날수록 공포와 불안이 엄습한다. 요즘은 집에 처박혀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SNS를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세상과 거리를 두는 생활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밖에서 말을 많이 하고 온 날 후회하지 않아도 되고, 씁쓸이 또한 즐겼다. 특히 예전에 비해 더 자주 가족과 식사를 하고, 차 한 잔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졌다.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라고나 할까.

어제 저녁식사 후, 김보일 시인의 산문집을 읽었다. 저자에게 사인본을 받고도 바빠서 읽지 못하고 잠시 미뤄놓은 책이다. 한두 페이지의 짧은 글과 직접 그린 그림이 수록된 책이라 술술 읽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컴퓨터 바이러스와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 가족에게 읽어주었다.

“286 컴퓨터로 글을 쓴답시고 여름 방학 내내 끄덕거렸는데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어 하드기 몽땅 날아갔다. 완전 난감했다. 바이러스에 한여름을 송두리째 잡아먹히고 우거지상을 하고 있자니, 어머니는 내 눈치를 살피며 아내에게 묻는다. ‘아범, 뭘 일 있냐? 왜 밥도 안 먹고 저러냐?’ 아내네 어머니에게 ‘컴퓨터가 바이러스 걸려서 한 달 쓴 글이 모두 날아가 버렸대요’ 한다. 어머니는 격정스레 ‘바이러스라고? 그럼 아범은 괜찮냐?’ 한다. 아내네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한 표정이다. 내가 킁킁거리자 그제야 아내도 웃어도 되는 거구나 하고 킁킁 따라 웃는다.”

듣고 있던 딸이 물었다. “아버지, 286 컴퓨터가 뭐예요?”, “응. 컴퓨터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

앙처리장치의 이름에 따라 286, 386, 486 컴퓨터라고 했지. 586부터 펜티엄이라고 하고. 지금은 컴퓨터 전원을 켜기만 하면 되지만 286 컴퓨터는 도스(DOS)라는 프로그램과 명령어·파일명 등을 알아야 사용할 수 있었어.”, “그러면 아버지도 도스 잘 아시겠네요.”, “아냐. 전원을 켜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만 배웠어.” 딸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 시절, 다니던 회사에 286 컴퓨터가 있었다. 컴퓨터가 비싸 회사 차원에서 서너 대 구입해 회의실에 두고 공동으로 썼다. 그 후 회사를 옮기면서 퇴직금으로 386 컴퓨터를 구입했다. 원고지에서 타자기, 다시 컴퓨터로 시를 썼다. 썼다 지우고, 다시 쓰니 참 편했다. 하지만 얼마 쓰지 못했다. 친구가 박사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컴퓨터가 필요하며 빌려 달라고 했다. 그 친구는 논문을 다 쓰고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컴퓨터를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3년 후에야 돌려받았는데, 이미 고물이 되어 있었다.

당시 저장장치는 5.25인치 디스켓이었다. 얇은 원반을 넣은 검은색의 보조기억장치. 회전판이 쉽게 구부러져 부드럽다는 뜻의 ‘플로피 디스켓’이라고도 불렸다.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용량은 1.2MB, 고해상도 사진 한 장쯤 담을 수 있었다. 저장용이 기보다는 주로 하드에 있는 원고를 다른 컴퓨터에 옮기는 용도로 사용했다. 그다음에 나온 것이 3.5인치 디스켓. 지금도 그때 쓴 원고가 저장되어 있는 3.5인치 디스켓 20여 개를 보관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나오는 컴퓨터에는 3.5인치 디스켓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컴퓨터 백신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원고를 날리는 일이 거의 사라진 것처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아내의 손을 잡고 느릿느릿 봄날 천변을 걷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립다.

시인 김정수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2월 21일 ~ 3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산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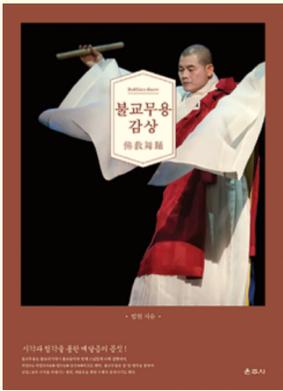
건화사	법상	3/20	20,000
관성사	김사룡	2/25	20,000
	인선	3/20	20,000
관음사	김정희	2/26	10,000
	해정	2/28	10,000
기로소스	해정	3/13	10,000
	상지화	3/20	10,000
	수중원	3/20	10,000
	밀공정	3/20	10,000
	총지화	3/20	10,000
	법수원	3/20	10,000
	선도원	3/20	10,000
	법지원	3/20	10,000
	일성혜	3/20	10,000
	사홍화	3/20	10,000
단향사	안주화	3/20	10,000
	진일심	3/20	10,000
동해사	시각화	3/20	10,000
	최상관	3/20	20,000
밀인사	지홍	3/10	10,000
	송인근	3/20	10,000
법천사	법선	3/20	10,000
	김재용	2/27	10,000
법천사	반야심	3/2	10,000

법흥사	유승태	3/7	10,000
벽룡사	승원	3/20	10,000
	묘원화	3/20	10,000
벗고을 어린이집	이민선	3/6	50,000
	나석원	2/27	20,000
사원명무기명	남영애	3/2	30,000
	이진승	3/4	10,000
	박필남	3/13	10,000
	김갑선	3/19	10,000
수인사	정순득	2/27	10,000
	이순옥	3/11	10,000
실보사	박성호	3/11	10,000
	안병지	2/28	10,000
실지사	연화법	2/28	10,000
	덕광	3/20	10,000
	보현	3/20	1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진금선	2/27	50,000
	해봉	2/25	10,000
운천사	정원심	2/25	10,000
	하재희	2/25	50,000
일원어린이집	구미자	3/2	10,000
	자석사	도우	3/10

자석사	지현	3/10	10,000
잠원햇살 어린이집	김선희	3/10	50,000
	정각사	변순개	3/13
지인사	승효제	2/28	10,000
	강혜란	2/27	10,000
초록어린이집	이지희	2/27	50,000
	손경옥	3/16	10,000
총지사	최영아	3/16	10,000
	박정희	3/17	10,000
	신용도	3/17	10,000
총지정보	이수경	3/17	20,000
	박재원	2/27	30,000
포레스타7 어린이집	최유정	2/28	50,000
	우인	2/27	10,000
회음사	보명심	2/28	10,000
	무명씨	3/2	10,000
	최영미	3/10	50,000
	강승민	3/10	5,000
	강점미	3/11	10,000
	무명씨	3/11	20,000
흥국사	지정	2/28	20,000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3/11



불교무용 감상



일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다 시각과 청각을 통한 깨달음의 몸짓

법현스님 저
신국판변형/ 120쪽
발행일 2020년 3월 10일
비소설 / 불교 무용
도서출판 운주사

불교의식에 종교적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예술로써 감상하는 이들에게 장엄한 불교의식에서 전개되는 불교무용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불교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안내서가 출간되었다.

불교무용은 불교의식에서 불교음악과 함께 스님들에 의해 진행되며 작법(作法), 작법무(作法舞), 법무(法舞), 승무(僧舞)라고도 한다. 저자는 책에서 불교무용은 몸과 입과 생각을 통해 삼업(三業)의 이치를 되새기면서 깨달음으로 향하는 수행의 몸짓이며, 엄불과 어우러져 불

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일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불교 교화의 방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대표적인 불교의식인 영산재, 수륙재, 생전예수재, 상주권공재, 각배재 등에서 진행되는 작법무의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타주춤 등 27종류의 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불교무용의 의미와 전래, 종류, 방법 등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풍부한 사진도 함께 실려 있다.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이자 책의 저자인 법현 스님은 동국대

학교에서 불교사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유럽·중동·남미·아프리카 등 60여개 나라에 초청되어 불교무용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를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를 선보였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기획홍보 총괄, 태고종 문화중무특보, 문화재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불교음악연구소 소장, 코리아나 예술단장, 사단법인 세계문화예술컨텐츠교류연맹 이사장을 맡고 있다.



<동백꽃 필 무렵>

불행을 극복하고 싶다면 이타적으로 행동하라

엄마 없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아이만큼 불쌍한 건 없습니다. 보호막 없이 거친 세상에 던져진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 살벌한 세상에서 운이 좋아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기구한 운명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 없는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KBS 2TV <동백꽃 필 무렵>의 동백(배우 공효진)이 바로 이런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고아원 앞에서 엄마는 동백을 버리고 가면서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동백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재수 없는 아이라고 누구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아서 외롭게 살았으며, 또한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구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백에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은 지난해 최대의 히트작이었습니다. 높은 시청률과 함께 이 드라마는 '2019 KBS 연기대상'에서 배우 공효진씨가 '동백이' 역할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12관왕에 오르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드라마의 무엇에 공감한 걸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흠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흠수저와 금수저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나눠진 계급의식을 나타내고, '헬조선'은 지옥을 뜻하는 'hell'과 '조선'의 합성어로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음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행복한 사람보다는 힘든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은 동백의 기구한 처지에서 공감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동백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동백에게는 재수 없다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고아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친구 한 명 없이 외롭게 살았으며 어른이 돼서 사귀던 남자친구의 엄마는 병균덩어리라며 동백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남자 앞길을 막을 재수 없는 여자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지만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웅산으로 왔습니다. 딱히 배운 기술도 없는 동백은 술집을 차렸습니다. 하필 술집이냐고요? 어렸을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그녀에게 술안주 잘 만든다고 칭찬했었는데, 그것 외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술집을 차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아줌마들의 경계가 심했습니다. 한 아줌마는 대놓고 자식한테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고 살자면서 동백을 마치 몸을 파는 여자인양 취급했고, 술집을 한다 하여 인격도 없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마을 아저씨들의 태도도 동백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거기다 웅산에서 아이와 함께 잘살아가려고 했는데 재수 없는 여자답게 살인사건에 휘말립니다. 하필 자신이 연쇄살인범의 유일한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침투해오는 살인자를 피해 어디론가 도망가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백은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의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마음이 사바세계에 있지 않고 천상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어떤 고통도 그녀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백의 답답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불행이 불행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동백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한 현실과 마음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것에 걸고 물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주는 대신 타인에게 자비심을 가졌습니다. 자기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술집 알바생 향미의 빗을 झा아 주고, 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엄마를 위해 신장까지 나눠주었으며, 마을의 외톨이인 까불이를 볼 때마다 밥을 챙겨주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통해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던 것은,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선량한 마음 때문입니다. 동백이 자신의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대신 타인의 고통에 연민을 가지는 자비심이었습니다. 이타적인 마음이 오히려 자신의 불행을 극복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동백꽃 필 무렵>은 가르쳐주었으며,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김은주 작가



성탄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부처님의 나심은
온 누리의 빛이요
못 삶의 목숨이라.

빛에 있어서 밝이 없고
목숨은 때를 넘느니라.

이곳과 저 땅에
밝고 어둠이 없고
너와 나에
살고 죽음이 없으라.

거룩한 부처님
나신 날이 왔도다.

향을 대위 받들고
기(旗)를 들어 외치세.

꽃머리와 풀 위에
부처님 계셔라.
공경하여 공양하니
산 높고 물 푸르더라.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선생은 1879년 8월 29일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다. 1905년 설악산 백담사로 들어가 속세와 인연을 끊고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불교를 통한 언론·교육 활동을 하며 1913년에 『조선불교유신론』을 간행하여 불교계의 혁신을 주장하였다. 일제강점기 시절 3·1 만세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독립 운동가이자, 시집 『님의 침묵(沈黙)』을 출판하여 저항 문학에 앞장섰던 시인이었다.

벽룡사 교도

노루페인트 대리점 삼화페인트 전문취급

대신상사 (도장공사 단종면허 업체)

취급 품목

- ▶방수공사전문업체
- ▶각종페인트 도·소매
- ▶인테리어 집칠
- ▶기와칠 벽돌방수
- ▶공사청부



SAMHWA 삼화페인트 NOROO

부산불교, 연등행렬·봉축연합대회 전면 취소

30일 송상현광장 개막 점등식부터 29일간 릴레이 기도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 스님)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해마다 봉행해 온 부산 시민과 불자들의 대 축제 연등행렬과 봉축연합대회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과 시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전면 취소했다.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 총지종 정각사 주교 범경 정사를 비롯하여, 회장

경선 스님, 부회장 세운 스님, 진광 정사 등 사부대중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축행사 일정 및 내용을 변경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모든 불교도가 기도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4월 30일 송상현광장에서 개막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28일까지 총 29일 간 치유를 위한 기도에 앞장서며, 국난 극복 및 국운융장 기원 범회를 릴레이 형식으로 봉행하기로 했다.

4월 30일 오후 6시 점등식을 시작으로 매일 저녁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부산지역 각 종단 및 구·군 연합회가 순번을 정해 기도를 올릴 예정이며, 이 기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스님 및 각 종단 지도자 위주로 동참, 2m 이상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봉행된다.

각 종단 및 구·군 연합회는 자체적인 예경의 특징에 따라 중점 기도의 내용을 달리 진행할 수 있으며 부산지역 7대 종교 지도자 협의체인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차원에서 종교를 초월해 평화화 화합의 기도에 동참할 전망이

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 연등 문화제’로 마련되는 전통 등 전시는 4월 30일~5월 28일 송상현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며, 점등식은 4월 30일 오후 6시 송상현광장 특별 무대에서 개최된다. 전통등은 대형 장엄 등 100여점이 전시되며, 각 사찰에서 마련한 사찰 작품등을 비롯해 구조물, 거리등으로 지해와 자비의 불을 밝힐 예정이다.

사무총장 정산 스님은 “봉축연합대회와 연등행렬을 취소하기 까지 회장 스님 및 임원진들의 고뇌와 토론이 있었다.”며 “하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나라의 안녕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뜻을 모았으며 많은 부분을 내려놓았다. 불교계의 결정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지사 전정부 교도 문화체육부 장관상

’2018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유공자 표창

부산 총지사 각자회 전정부 회장이 2018년도 개최된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 유공자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 전회장이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주)동남엔지니어링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총지사 전정부 교도

았다. 장관상을 수상한 전 회장은 “올림픽에 운용되는 대부분의 기계설비 시공이 주로 해발 900m 이상 높이에 이루어지는 만큼 안전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으며, 큰 사고 없이 올림픽이 치러지

전 회장은 기술사 자격으로 올림픽 개최 3년 전인 2016년부터 가리단 소속으로 강원도에 상주하며, 기계설비 분야 감리를 맡아 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성공 개최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지난해 12월 31일 박양우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

고, 수상까지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 회장은 40여 년을 넘게 총지사 교도로 임명된 중이며, 지난 2012년도에는 총지사 남파 교도들의 신명모임인 각자회를 결성하고 회장직을 맡아 종단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

불교서적 월간베스트

2020년 3월 1일 ~ 3월 31일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2	낮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3	요가 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4	초기 불교 이해	각목스님	초기불전연구원
5	수좌 적명: 봉암사 수좌 적명스님의 유고집	적명스님	불광출판사
6	안녕 다람 실라	청천스님	운주사
7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8	사성제 :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일묵스님	불광출판사
9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10	10분 치유 명상 : 문화 치유 명상	송주 김응철	불교신문사

제공 : 도서출판 운주사

교도 특별기고

교우님들, 보고 싶습니다

신정희 서울경인지회
김은숙 지회장

사랑하는 우리 총지종 교우님들! 건강하게 잘 계시죠? 이 위험한 현실 속에서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와 진리에 따라 잎이 돋고 꽃이 피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인간

들은 왜 이렇게 전쟁보다 무서운 재앙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주법계에서 내리는 뜻이 모두 우리들 것임을 깨우치고, 정신을 차려 혼

신을 다 해 이 위기를 잘 넘겨야 합니다. 우선 건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보살님들! 우리가 사원에 모여 불공하고 행사를 하던 때가 참으로 그리웁습니다. 모두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집에서라도 시간을 꼭 지켜서

불공하고 정진하는 것이야말로 종단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스스로 바른 뜻을 세워 반드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우리 자손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날은 멀지 않아 꼭 올 것입니다. 빠른 만남을 바라면서 우리 교우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서원합니다.

다름없는 마음이거나,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광어로 초밥을 만들었다는 사진, 테이블에 꽃꽂이한 예쁜 모습도 함께 공유했다. 다도반 특에서는 직장을 다녀야 하는 보살님들을 응원하며 이 시기를 잘 넘기도록 바랐다. 다도 선생님께서 목련차를 만들었다고 하여 작년 목련차 먹을 때를 생각하며 답 글을 썼다. “목련꽃이 첫잔에 피어나는 날을 그리며 매일을 보내겠습니다.”

확진자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한다. 절에도 못가고, 합창단, 다도반 활동도 못하

코로나19가 깨우쳐준 것

자석사 여순애 교도

코로나19로 본의 아니게 집밖에 나가는 것을 조심하게 되었다. 집에 있다 보니 엄마랑 둘이서 하루를 보내는 게 익숙해져 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 후 녹차를 우려먹는 게 일상의 시작이 되었다. 함께 불공을 드리는 시간엔 집안에 정적이 흐르고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진다. 하루 세끼 식사를 해먹고 멀리 있는 동생에게 김치를 담가 보내는 등 집

이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1주일이 지나고 2주가 되면서 마음이 우울해졌다. 마스크를 쓰고 엄마와 1시간씩 시청 뒤에서 산책을 하기로 했다. 햇살의 파스함이 너무나 좋았다. 맑은 공기가 날 깨어나게 했다. 걷기 운동이 이렇게 좋은 건지 새삼 느꼈다.

합창단 특에서는 합창할 때가 그립다는 이야기들이 올라왔다. 나와

게 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 모두들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함께 한 일상이 너무나 행복했다는 것. 다시 만나면 더욱 즐겁게 지내야지, 일상의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왜 몰랐던가, 사람이 만나고 교류하고 자연을 즐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행복이구나, 무엇을 욕심 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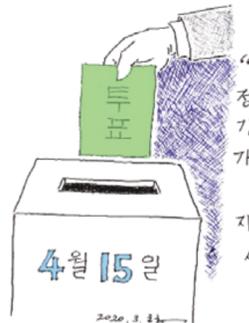
시간이 가면 마스크를 사둔다. 마스크 기부를 한다는데 나도 자그마한 기부를 하려고 한다. 지금 내가 이 난국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아닌가. 난 오늘도 두 장의 마스크를 샀다.

다름없는 마음이거나,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광어로 초밥을 만들었다는 사진, 테이블에 꽃꽂이한 예쁜 모습도 함께 공유했다. 다도반 특에서는 직장을 다녀야 하는 보살님들을 응원하며 이 시기를 잘 넘기도록 바랐다. 다도 선생님께서 목련차를 만들었다고 하여 작년 목련차 먹을 때를 생각하며 답 글을 썼다. “목련꽃이 첫잔에 피어나는 날을 그리며 매일을 보내겠습니다.”

확진자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한다. 절에도 못가고, 합창단, 다도반 활동도 못하

총지스케치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우리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댓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 플라톤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참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안민의 정진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제중추'에 의한 진인 '출몰야호사'로써 국민안전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총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경기교구			
관성사	030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범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삼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백월사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9-1 (도마동)	(042)527-5470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황근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곡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호자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삼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화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해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서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화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정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제1회 유마 포럼

한국 재가불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귀의삼보하옵고,

불교총지종·보디미트라에서는 재가단체와 재가불자들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유마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러한 대화의 장은 재가불자들의 소통과 지속가능한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불교 재가불자들의 실천 영역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열리는 유마포럼은 소통과 지속가능한 연대를 위해, 먼저 재가단체와 재가불자들의 과거를 되돌아봄으로써 현재를 바로 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모쪼록 한국 재가불자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에 뜻있는 재가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불교총지종·보디미트라 ILBF



1. 일시 : 2020년 6월 20일 (토) 10:00-17:00
2. 주제 : 한국 재가불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불교에서의 재가 불교의 위상과 역할
- 한국불교에서의 재가 불자의 이상과 실천
- 한국재가불교 운동의 현재와 미래
- 재가불교단체의 활동 상황과 향후 전망

3. 참가 대상 : 한국의 재가불교단체 관련 지도자 혹은 활동가
4. 발표 시간 : 1인당 약 20분 (A4 2장 분량 요약본 사전 제출)
5. 장소 : 불교총지종 통리원 반야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 담당 : 총지종 법장원 연구원 김재동 (010-2993-9262)



불교총지종